

다니엘서 - 번호 173

교황의 그림자: "히틀러의 교황" 배후의 영향력과 의도를 밝히기

Jeff Pippenger

2024-04-03

«히틀러의 교황»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저자 존 콘웰은,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던 시기에 재위하게 될 미래의 교황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 시에서 축출되었던 그의 조부와 교황 비오 9세로부터 시작한다. 비오 9세가 수녀로 변장한 채 로마 시를 탈출했을 때, 그가 오직 한 사람만 데리고 갔으니, 그는 곧 미래의 교황의 조부였다. 콘웰은 이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다루고, 이어서 미래의 교황의 부친 또한 가톨릭교회의 권력 중심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밝혀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비오 9세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속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환경을 규명한다. 그 역사 개관은 대단히 유익하다.

교황권의 주장에 또 한 단계가 더해진 것은 11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로마 교회의 완전성을 선포했을 때였다. 그가 제시한 여러 명제 가운데에는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결코 오류를 범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성경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 오만한 교황은 또한 황제를 폐위할 권한을 주장하고, 자신이 선고한 어떠한 판결도 누구도 번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모든 이들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자신의 특권이라고 선언했다.

무오성의 옹호자인 그의 폭군적인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는 그가 독일 황제 하인리히 4세를 대했던 방식에서 드러났다. 교황의 권위를 무시하려 했다는 이유로, 이 군주는 파문되고 폐위되었다고 선포되었다. 교황의 칙령에 힘입어 그에게 반기를 든 제후들의 이탈과 협박에 겁을 먹은 하인리히는 로마와 화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아내와 충직한 시종 한 명과 함께 한겨울에 알프스를 넘어, 교황 앞에 자신을 낮추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레고리우스가 몸을 피하고 있던 성에 도착하자, 그는 경호원 없이 바깥 뜰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한겨울의 혹한 속에 맨머리와 맨발, 초라한 옷차림으로 교황 앞에 나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기다렸다. 그가 사흘 동안 단식하며 고해를 계속한 뒤에야 교황은 마지못해 그에게 용서를 베풀었다. 그마저도 황제가 왕권의 표장을 다시 취하거나 통치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교황의 재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조건부였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는 자신의 승리에 고무되어, 왕들의 교만을 꺾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자랑하였다. 위대한 논쟁, 57.

그레고리우스 7세는 “무오류성의 옹호자”였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주장은 비오 9세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 어리석은 주장을 확립된 교리로 만들 때까지 공식 교리(도그마)로 제정되지 않았다. 그 교리는 1870년 7월 18일에 가결되었는데, 이는 그 14만 4천 명의 첫 실망이 있기 정확히 150년 전이었다.

역사에서 시사하는 바는, 비오 9세가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고 자신의 무류성 교리를 도입했을 때, 그의 동기가 이른바 ‘근대주의’라 불린 것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교황이 성경 교리를 정의할 때 오류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이 초래한 영향력에 맞선 교황의 반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라고 불리게 될 사상에 맞서 겨냥된 것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유럽 국가들의 지배 체제에 격변을 가져왔으며, 특히 교황권이라는 군주제에 대한 강한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피우스 9세와 그의 오른팔을 일시적으로 로마에서 축출한 것은 이탈리아 공화주의자들의 반란이었다. 프랑스 혁명이 낳은 여러 철학으로 대표되는 '근대주의'는 피우스 9세의 최대의 숙적이었고, 그의 무류성 교리는 프랑스 혁명이 산출한 근대주의 사상에 맞서 교황이 내세운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은 1798년에 남방 왕(무신론적 프랑스)이 북방 왕(교황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고 밝힌다.

비오 9세의 무류성 교리는 다니엘 11장 40절에 의해 표상된 그 전쟁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1869년 후반부터 이듬해에 이르기까지 비오 9세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곧 바티칸 1공의회를 소집하였는데, 그 목적은 교황이 가톨릭의 수장임을, 그리고 가톨릭이 모든 교회의 머리임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이는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에 의해 선포된 바와 같은 것이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바티칸 II)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열렸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으며, 현대에 가장 중요한 에큐메니칼 공의회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 공의회는 요한 23세 교황의 지도 아래 소집되었고, 1963년 요한 23세의 서거 이후에는 바오로 6세 교황의 재임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 두 공의회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공의회의 목적은 이른바 교황의 "수위권"(primacy)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 이는 곧 교황이 교회의 최고 통치자요, 교사이며, 목자로서 신앙 교리를 보존하고 해석할 책임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의 권위는 교의를 규정하고, 교리적 칙령을 공포하며,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권위 있는 선언을 내리는 데 있었는데, 이것이 교황 무류성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기에는 주교를 임명하고, 성례를 규율하며, 교회의 행정을 다스리는 권한을 포함하여, 보편 교회 전체에 대한 교황의 사법적 관할권이 포함된다.

두 번째 공의회는 교회를 에큐메니컬한 공동체로 방향 전환시키려는 것이었다. 두 공의회의 취지는 정반대였다. 보수적인 첫 번째 공의회는 자유주의적인 두 번째 공의회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그 두 파벌은 밤과 낮만큼이나 달랐고, 파티마의 세 가지 비밀에 귀속되는 예언은 이 두 공의회로 적절히 상징되는 내부 전쟁을 가리킨다.

그 예언은 비오 9세가 상징하는 수위권을 옹호하는 부류를 '흰 교황', '좋은 교황', 혹은 '좋은 주교'로,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연관된 다른 부류를 '검은 교황', '나쁜 교황', 혹은 '나쁜 주교'로 각각 상징한다. 두 정치적 개념 사이의 논쟁은 포르투갈 파티마에 있는 파티마 기적 성지를 방문하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입구로 들어서면 통로가 한쪽의 검은 교황 동상과 다른 쪽의 흰 교황 동상 사이로 나 있다.

따라서 그의 뿌리가 현대주의(남방의 왕)와 교황 수위권(북방의 왕) 사이의 투쟁 속에 얽혀 있다는 사실은, 그 책이 '히틀러의 교황'이라고 지목하는 그 인물의 유산의 일부가 된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신망 있는 가톨릭 신자였으며, 그가 이 책을 집필한 명시된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재위하였던 교황이 히틀러나 나치스를 지지하였거나 유대인 및 기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홀로코스트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있었다는 주장에 빛을 비추는 데 있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코른웰이 바티칸 제1차 공의회를 성립시키는 데 있어 오른팔 역할을 했던 비오 12세의 조부를 다룰 때,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 사이의 투쟁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공화주의" 혁명이 이탈리아에 이르렀을 때, 약 1년 동안 이탈리아인들은 비오 9세를 로마 시에서 축출하였고, 그때부터 그가 돌아온 뒤에도 교황권이 소유해 온 것은 바티칸 시국으로 알려진 110에이커뿐이었다.

그가 바티칸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프랑스 군대의 도움과, 악명 높은 유대인 은행가들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출에 의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황권의 공모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이후 유대인들에 대한 유럽의 태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은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가 서로 다른 두 태도라고 시사하면서, 히틀러의 유대인 혐오는 인종주의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인간의 열등한 범주로 보았던 반면,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둘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든, 아니면 실제로 양자 사이에 구별이 존재하든, 유대인들의 곤경이라는 현실은 이해할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에서 "게토(ghetto)"라는 말이 사용되면, 대부분은 그것을 가난하고 황폐한 도시의 한 구역을 뜻하는 말로 생각한다. 그러나 "게토"라는 용어는 본래, 특히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중세 시대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도록 강요받았던 도시의 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최초의 게토는 1516년 베네치아에 설치되었는데,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이 유대인들을 도시 내의 지정된 구역인 "게토 누오보(geto nuovo)"(새 주소)로 제한하였으며, 이곳이 결국 게토로 알려지게 되었다.

중세 내내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에 제한을 받았다. 이러한 제한은 반유대주의의 옛 정의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그 정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였으며 그 이후 그들이 겪은 모든 문제는 그들 자신의 행동으로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리켰다.

중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빌려 주거나 대부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전통이었다. 유대인들은 그 제한에서 제외되었으며, 돈을 빌려 주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허용된 직업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로스차일드 가문과 같은 유대인 은행가들은, 그들에게 어떤 직업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제한에 따라, 환전상들이 되었다. 비오 9세가 바티칸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을 때, 더 이상 로마 시를 통치하지 못한다는 좌절은, 자금을 위해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다는 필요로 인해 더욱 커졌다.

로마에서 축출되기 전에 비오 9세는 유대인들과 교회의 유대인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 두 진영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듯이 보였다. 그 두 진영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이 단지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다고 믿는 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다소의 자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비오 9세가 축출된 뒤 바티칸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망명 이전에 때때로 드러냈던 자비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망명 이전에는 로마 시의 게토를 폐쇄하였으나, 귀환한 뒤에는 그 게토를 다시 स्थापति하고, 자신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교황 비오 9세의 오른팔은 히틀러의 교황의 할아버지인 마르칸토니오 파첼리였다. 그는 교황권을 지지하는 특별한 변호사 계층에 속한 변호사였다. 그의 아들도 그와 같은 엘리트 변호사 계층의 일원이 되었고, 결국 히틀러의 교황이 될 그의 손자도 마찬가지였다. 이 책은 에우제니오 파첼리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그의 유년기와 교육의 역사를 훑은 뒤, 파첼리가 교황청을 위해 일을 시작하면서 맡게 된 직위를 다룬다. 엘리트 교황청 변호사들의 후예인 변호사로서, 그는 계약, 곧 concords라 불리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이끌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1901년 파첼리는 교황청 국무원으로 발령받았다.

파첼리는 만국의 사절이 되었다. 예언적으로 파첼리는 세상 왕들과 교황권 사이의 음행을 완결짓는 법적 접점이 되었다. 1903년, 피우스 10세가 교황으로 즉위했다. 그는 즉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낳는 '지적 독'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피우스 10세의 '근대주의' 척결 노력을 주도한 사람은 파첼리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움베르토 베니니였다. 베니니는 한때 세계적 역사학자들 한 집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에게 역사란 끊임없이 절박하게 토해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런 부류의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의 처방만이 있다. 종교재판이다!' 베니니에게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사상에 조금이라도 동조를 표하는 역사학자는 처형 대상이었다.

공식적으로 베니니는 교황청의 선전부를 운영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남방의 왕에게서 기원한 '근대주의'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가톨릭 신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고안된 비밀 첩보망도 운영했다. 결국 1910년에 그의 활동은 교황청 직원들에게 '반근대주의 선서'라고 불리는 선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낳았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바티칸에서 고용되려면 오늘날 우리가 공산주의적 사상이라고 부를 근대주의 사상을 증오하겠다고 선서해야 한다.

크론웰의 책 요약에서, 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세기의 첫 10년 동안, 젊고 뛰어난 바티칸 변호사로서 파첼리는 전례 없는 교황권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1920년대에는 그는 독일에서 권력을 관철하기 위해 책략과 협박을 동원했다. 1933년, 히틀러는 그의 완벽한 협상 파트너가 되었고, 가톨릭이 사회적·정치적 활동에서 물러나는 대가로 가톨릭 교회에 종교적·교육적 이점을 부여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로마에서 강요된 정치적 가톨릭의 이 '자발적' 포기는 나치즘의 부상을 촉진했다."

1933년 7월 14일 내각 회의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그 달에 파첼리가 나치와 만든 협정이 독일에 "신뢰의 영역을 만들어 주었다.... 국제 유대인에 맞선 전개 중인 투쟁에서"라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콘월의 책은, 독일이 가톨릭 신자가 다수인 나라였으므로 파첼리가 히틀러가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주된 이유였다는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첼리는 1933년 이후 가톨릭 출판사들과 가톨릭 통신기관들 및 가톨릭 학교들이 히틀러의 행보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책은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 교황이 된 파첼리의 명백한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추적한다. 그 책을 통하여, 적어도 세 가지 사항은 매우 신뢰할 만한 역사적 자료들에 근거하여 확정될 수 있다.

첫째는 다니엘 11장에 나타난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대적하는 세력은 가톨릭교와 무신론, 곧 교황과 공산주의이다. 또 다른 요점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교황이 무신론에 대항하는 자신의 대리 군대로 나치즘을 사용하였으며, 마치 1989년에 소련의 무신론에 대항하는 자신의 대리 군대로 배도한 개신교를 사용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파티마의 기적에서 나온 사탄적 메시지들로 대표되는 내적 및 외적 예언 구조를 밝힌다.

다니엘 11장 11절과 12절에 제시된 라피아의 경계선 전쟁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계선 전쟁을 상징한다. 고대의 전쟁은 열전이었고,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대리전으로서, 그 대리 군대들이 치명적인 상호 충돌에 관여하고 있다. 라피아는 그 경계선 전쟁이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전쟁임을 밝혀 주지만, 예언은 임박한 일요일 법이 이르기까지 두로의 음녀는 잊힌 바 되고,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있으며, 헤로디아는 헤롯의 생일 잔치를 건너뛰었다고 가르친다. 현재의 이 역사에서 북방 왕의 역할에 대한 그 세 증인은, 그녀가 배후에서 실을 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잊힌 바 되어 있는 동안 일어나는 열전들과 대리전들과 냉전들은 그녀의 대리 군대들에 의해 수행된다.

러시아는 남방의 왕이며, 지금 그것은 서방 세계의 세계주의자들, 주로 미국의 진보적 민주당원들과 명목상 공화당원들(RINO, Republican In Name Only Republicans)의 자금 지원을 받는 국경선상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미국이 북방 왕의 대리 군대로 표상될 때, 그 두 가지 예언적 특징은 군사력과 재정력이다. 미국은 1989년에 했던 것과 동일한 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곧 교황을 도와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지에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대리 군대는 나치 지지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류 언론조차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로마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열전에서, 그리고 1989년에,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대리 군대들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 다음 책을 읽어 보라: 『Hitler's Pope, the Secret History of Pius XII』.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장차 올 시대들을 위한 교회의 역사를 열어 보여 주시려 할 때,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들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와 같은 이'를 그에게 나타내심으로써, 구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관심과 돌보심을 확증해 주셨다. 요한은 교회가 땅의 권세들과 벌일 마지막 위대한 투쟁을 보여 주심을 받는 동안, 신실한 자들의 최후 승리와 구원도 바라볼 허락을 받았다. 그는 교회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고, 그 짐승에 대한 경배가 죽음의 위협으로 강요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전쟁의 연기와 소음 너머를 바라보며, 그는 시온 산에서 어린양과 함께 있는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 대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그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진 채 유리 바다 위에서 있는 자들'이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보았다.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 앞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할 때가 곧 닥쳐오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서 자신의 재림에 앞서 임할 두려운 심판들을 일러 말씀하셨다: '너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러한 예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마지막 때에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예언들이 빠르게 성취되고 있다. 주님은 문 앞에 계신다. 곧 모든 살아 있는 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사가 될 시기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과거의 논쟁들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논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세계에서 펼쳐질 광경들은 아직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다. 사탄은 인간을 통로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헌법을 바꾸고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려 애쓰는 이들은 그 결과가 무엇이 될지 거의 깨닫지 못한다.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닥쳐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 큰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한에게 주어진 환상들 속에서 우리는 하늘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 충성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본다. 세상은 통치자 없는 곳이 아니다. 다가올 사건들의 계획은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늘의 위엄자께서는 민족들의 운명과 그분의 교회에 관한 일들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 증언, 제5권, 752, 753쪽.